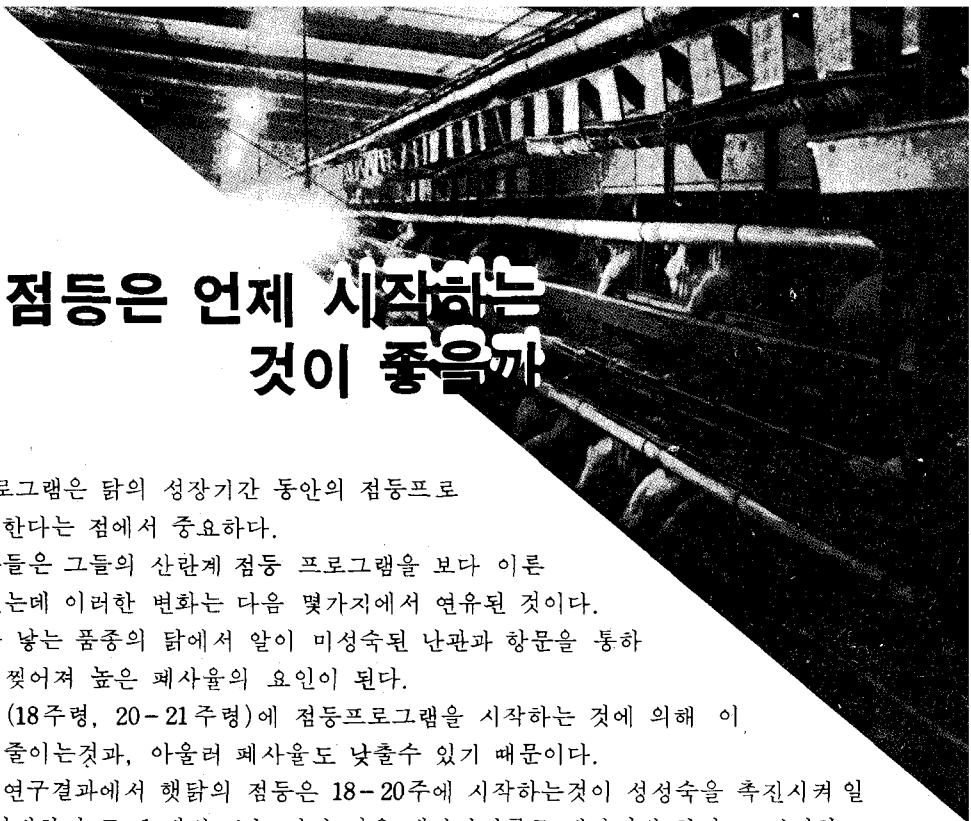


# 산란계의 점등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산란계의 점등프로그램은 닭의 성장기간 동안의 점등프로그램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많은 생산자들은 그들의 산란계 점등 프로그램을 보다 이른 연령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다음 몇가지에서 연유된 것이다.

일찍부터 큰 알을 낳는 품종의 닭에서 알이 미성숙된 난관과 항문을 통하는 동안 이 부분이 찢어져 높은 폐사율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른 연령(18주령, 20-21주령)에 점등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에 의해 이 닭들에게 알기기를 줄이는 것과, 아울러 폐사율도 낮출수 있기 때문이다.

퓨리나는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햇닭의 점등은 18-20주에 시작하는 것이 성성숙을 촉진시켜 일찍부터 적은 알을 낳게하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생산사이클로 생산되게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표 1. 점등시작연령에 따른 산란율

	18주	20주
18-35주생산(%)	67.0	64.1
피크생산(%)	91.1	92.0
피크때의 연령(주)	27	28
난중(g)	53.5	54.3

또한 생산패턴을 바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닭의 점등을 18주령 또는 20주령 어느때 시작하는 것과 관계없이 56주간의 생산기간 동안의 산란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산란계의 점등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는 또한 특수한 품종과 관련된 문제이다. 난가(卵價)가 높은 시기에는 산란계의 점등프로그램은 18주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작은 알을 낳는 품종에서는 더 큰 알을 얻기위해 20-21주가 되기까지 산란계의 점등프로그램을 억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햇닭의 영양소 필요량은 점등시각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이는 성성숙의 변화가 오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2-3주 일찍 점등을 시작 하는 것은 곧 산란계의 사료프로그램도 이에 따라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Poultry International 80.7)

## 사진설명

새 계사로 편입된 암탉은 신경질적이고 두려워하고 있다.

낮은 촉광의 점등은 이들의 소요를 억제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게한다.